

법원이 되살린 10개 자사고… 中3 학생들 혼란 가중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

지정취소 처분 10개 학교 지위유지 소송 결론 전까지 자사고 전형 가능 교육 당국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 본안소송 3~4년 뒤에야 마무리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도 안산동산고 등 올해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10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회복됐다. 그러나 자사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고 10곳 학생 선발 길 열렸지만… 학부모 “여전히 불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성 논란 등으로 얼룩졌던 올해 자율형사립고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곳, 부산 1곳, 경기 1곳 등 총 10곳의 자사고가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들 학교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자사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동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입학 전형을 어떻게 진행할지 밝히고 있다. 배재고 교장(오른쪽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게 됐다.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3~4년 뒤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음 달 본격적으로 고교 입시에 나서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법원 결정으로 고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 당국이 여전히 ‘자사고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3 학부모 이은호(가명·45·서울 금천구)씨는 “원래 가려던 자사고가 지정

취소됐다고 해서 ‘멘붕’에 빠졌는데, 한 달 만에 자사고로 돌아간다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교육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마구 바뀌어도 되는 건지 화가 난다”고 했다. 중3 자녀를 둔 남민우(42·서울관악구)씨 역시 “예전부터 아들을 자사고인 경희고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정취소 됐다가 가처분이 인용됐다지만, 앞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법적 다툼이 계속될 텐데 과연 지원해도 될지 걱정된다”고 밝

혔다.

◆자사고 인기 이미 시들…“법원 판결로 반전 없을듯”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고입에서 지역 자사고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미달이 나올 정도로 자사고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 수 감소나 올해 자사고 논란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자사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논란이 된 8개 서울 자사고는 모두 학군 내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이기에 학교 수준 측면으로서는 이들 학교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가처분 신청 등의 논란에 상관없이 소신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향후 자사고 지위 보장된 학교 우선할 것”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교육청 평가에

통과해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가 보장된 자사고를 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 기를 받은 곳은 총 13곳이다. 이중 경희·배재·세화·송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은 탈락했다가,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즉, 지위가 ‘불안한’ 자사고다. 반면 동성·중동·한가람·이화여고·하나고 등 다섯 곳은 교육청 평가에 통과해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가 보장된 학교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자사고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자사고는 오히려 교육청이 ‘문제없는 학교’라고 인증 도장을 찍어준 셈”이라면서 “이 같은 자사고가 강북·강남에 골고루 분포돼 지역 자사고 지원자들은 이들 학교로 대거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오세복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시·도 교육청의 잘못된 평가로 인해, 몇몇 자사고가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들 자사고 역시 내실 있는 교육, 노력하는 교사, 면학 분위기 등을 갖춘 훌륭한 학교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향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858명, 석사 49명 등 90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

2018 후기 졸업식, 907명에 학위 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858명, 석사 49명 등 90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경희사이버대는 개교 이후 학사 2만

8538명, 석사 464명을 배출하게 됐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세무회계학과 김수윤 씨가 총장상을 수상했고, 관광레저항공MBA전공 채창훈 씨와 글로벌 한국학전공 김은민 씨가 우수학위논문상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

인문학 행사 ‘모빌리티 인문페스티벌’ 연다

건국대 전시회·토크콘서트 등 진행

건국대학교는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이 HK+ 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 주관으로 3일~6일까지 나흘간 ‘모빌리티 인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기간 인문주간으로 지정되고 건국대 서울캠퍼스 내에서 모빌리티 미술전시회, 토크콘서트, 모빌리티 영화제, 워킹모빌리티 건국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1층 로비에



건국대 전경

서 열리는 모빌리티 미술전시회에는 인문교양센터 인문학 강의 ‘모빌리티 Hi-Story 100강’을 수강한 건국대 부속 중학교 학생들이 그린 작품 중 심사를 통과한 25점이 전시된다.

/한용수 기자

고려대-스케일업코리아 MOU

교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에 ‘힘’ 모은다

투자 유치·맞춤형 창업멘토링 운영

고려대가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하기 좋은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고려대는 지난 29일 교내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해 네이버 비즈니스 ‘스케일업코리아’ 주관사인 인터비즈(대표 이강운), 공동운영사 아이티동아(대표 강덕원), 인사이트스(대표 황현철), 골드아크(대표 김대일)와 다자간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스케일업코리아는 고려대 창업기업 중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해부터 연구부총장 직속 크림슨창업지원단을 설립, 교내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 | 2019.08.29(목) 11시 장소 |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



(주)인사이트 황현철 대표(왼쪽부터), (주)인터비즈 강병기 팀장, 고려대 이진한 연구부총장, (주)아이티동아 강덕원 대표, (주)골드아크 김대일 대표

/고려대학교

이에 빌맞춰 이날 협약식에서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50명을 크림슨창업멘토단으로 위촉, 학생과 교원 대상 수료 맞춤형 창업멘토링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비즈 강병기 팀장은 “스케일업코리아 관련 기업들은 창업기업의 외형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코리아 프로젝트’를 1년째 진행해오고 있

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 학생과 창업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이진한 연구부총장은 “대학과 민간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교내 창업인프라 확산에 더욱 힘쓸것”이라며 “앞으로 창업하기 좋은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

서울대, 채용박람회 연다… 기업 110곳 참여

졸업생은 물론 타 대학생도 참여 가능

서울대학교는 경력개발센터와 총동창회 공동주관으로 3일~4일 양일간 교내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2019 Dream On 서울대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국내외 공·사기업 110곳이 참여하고,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은 물론 타 대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현업 직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만나 모집분야에 대한 세부 안내와 실질적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이공계 특별관도 마련된다.

서울대 채용박람회 사이트에서 관심 기업에 사전 상담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심층적 상담이 가능하다.

‘시집이 취직’ 밭언 교수 법원 “해임 정당하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 성 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손현경 기자